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발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훈련에는 유사시 일본주둔 미제침략군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탄도로켓발사훈련은 전략군 화성포병들의 핵 전투부취급질서와 신속한 작전수행능력을 판정검열하기 위하여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략군사령관 김락겸대장을 비롯한 지휘성원들과 함께 탄도로켓발사장들을 돌아보시며 화력타격훈련준비정형을 직접 료해하시고 감시소에 오르시여 발사계획을 청취하신 다음 훈련을 시작할 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대지를 박차고 솟구친 탄도로켓들이 천둥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날아올라 밝아오는 동쪽 하늘에 원추격멸의 비행운을 자랑차게 새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가득 메운 탄도로켓의 비행운을 바라보시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이제는 화력타격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정말 잘한다고, 화력타격의 신속성과 일



치성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우리의 탄도로켓들이 얼마나 고도로 정밀한지 동시발사된 4발의 탄도로켓들이 마치 항공교예비행대가 편대비행을 하듯 한모양새로 날아간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탄도로켓발사훈련을 통하여 수중과 지상의 임의의 공간에서 덤벼드는 원수들을 무자비한 핵강타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가장

철저하게 씨도 없이 죽탕쳐버릴수 있는 최강의 핵공격무력으로 장성강화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군사적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번 탄도로켓동시발사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화성포병들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면서 우리 식의 위력한 탄도로켓들과 주체적인 화력타격전법으로 무장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같은 최정예의 전략무력을 가지고있

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라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전략무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유일적령도체계, 유일적지휘관리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실천화, 과학화, 현대화를 기본종자로 한 주체적인 로켓타격전법을 더욱 완성하며 우리 식의 초정밀화되고 지능화된 로켓들을 련속개발하고 질량적으로 강화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언제 실전으로 번져질지 모를 준엄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고도의 격동태세를 유지하며 당중앙이 명령만 내리면 즉시 즉각에 화성포마다 멸적의 불줄기를 뿜을수 있게 기동준비, 진지준비, 기술준비, 타격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데 대하여 명령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들이 적들과의 판가리결전에서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으로 서의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 어서 오라 부르는 문화정서생활기지들



평양의 이르는 곳마다에 훌륭히 일떠선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각계층 근로자들이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있다.

여기는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자리잡은 룡라곱등어관. 조교사들의 손동작과 호각소리에 맞추어 기묘한 재주를 부리는 곱등어들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있다.

한 기교동작들 또한 불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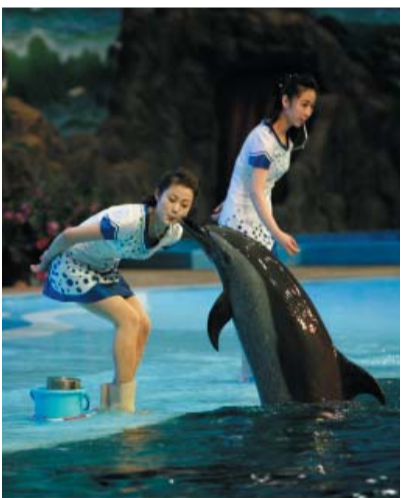
이것이 어찌 룡라곱등어관에만 펼쳐진 화폭이라. 현대적으로 멋들어지게 개진된 중앙동물원에서도 인민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더해줄수 있게 각이한 동물들의 여러가지 재주들을 훌륭히 완성하고 손님들을 어서 오라 부르고있다.

손님들을 환영하는 지느러미기교, 집체조악하여 높이 매달린 공을 주둥이로 치는 기교, 원을 그리며 물결을 헤가르는 기교, 여러가지 장단에 맞추어 꼬리로 장단을 치는 기교, 조교사와 함께 잡수도 하고 여러가지 물들을 펼쳐보이는 기교 등 곱등어들의 신기한 재주를 보며 관람자들은 연방 웃음을 터치고있다.

창밖에는 찬바람이 불어도 계절의 변화를 모르는 문수물놀이장에서는 물놀이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로 매일과 같이 흥성이고있다.

관람자들에게 기쁨을 더해주는 물개들의 다양

도 회열과 랑만속에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 사화 매화 한 그루 (6) 글 리 빈, 그림 김 윤 일

옛말에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 했거늘 남의 사정을 들어주지는 못할망정 그따위 몸값 수작을 꺼리낌없이 내뱉어?! 저런 작자를 믿고 온 내가 어리석었지.

분하고 창피한 마음을 더는 주체하기 어려워 회돌아서는 그앞에 민씨가 먼저 부은 돈뎌미를 그대로 던져주었다. ...

김홍도는 대꾸를 하지 않고 매화화분앞에 들고온 보통이를 헤친 다음 여러가지 붓과 색감그릇들 그리고 서너자자리 명주천을 꺼내놓았다.

그는 지난 밤새껏 생각이 많았었다. 매화를 제 것으로 만들지 못한탓때문이였다. 원래부터 천성적으로 매화를 몹시도 사랑하였기에 그토록 훌륭한 매화를 제 것으로 만들고 예를 써왔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으니 어찌 그러지 않으랴. 그러나 거기에는 단순히 매화에 대한 사랑뿐만이 아닌 화공으로서의 리념이라고 할가, 어쨌든 그런것이 바탕으로 깔려있었던것이다. 그것은 매화를 애지중지하며 즐기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화폭에 그대로 옮겨 아름다운 매화를 영구히 보존하려는 화공의 본성이였다.

살아있는 꽃은 몇날 가지 못하고 시들고만다. 하기에 《화무십일홍》(열흘 붉은 꽃 없다.)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런즉 것처럼 뛰어나게 아름다운 꽃을 제철에 몇몇 사람들이나 보다가 말라고 내버려두는것은 진실한 화공의 태도가 아니다. 그것을 화폭에 옮겨 후대들이 대를 이어 보게 만들어야 한다. ...

들어다보았다. 마치도 생화가 아니라 그림그리기를 보려 온듯싶었다.

이때였다. 새로 들어오던 어떤 사람 하나가 김홍도를 보더니 큰소리로 웨쳐대는것이였다.

《아—니, 단원선생이

《집의 매화를 그리려고 왔소.》

《매화를 그리다니?! 그건 무슨...》

《...》

김홍도는 대꾸를 하지 않고 매화화분앞에 들고온 보통이를 헤친 다음 여러가지 붓과 색감그릇들 그리고 서너자자리 명주천을 꺼내놓았다.

그는 지난 밤새껏 생각이 많았었다. 매화를 제 것으로 만들지 못한탓때문이였다. 원래부터 천성적으로 매화를 몹시도 사랑하였기에 그토록 훌륭한 매화를 제 것으로 만들고 예를 써왔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으니 어찌 그러지 않으랴. 그러나 거기에는 단순히 매화에 대한 사랑뿐만이 아닌 화공으로서의 리념이라고 할가, 어쨌든 그런것이 바탕으로 깔려있었던것이다. 그것은 매화를 애지중지하며 즐기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화폭에 그대로 옮겨 아름다운 매화를 영구히 보존하려는 화공의 본성이였다.

살아있는 꽃은 몇날 가지 못하고 시들고만다. 하기에 《화무십일홍》(열흘 붉은 꽃 없다.)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런즉 것처럼 뛰어나게 아름다운 꽃을 제철에 몇몇 사람들이나 보다가 말라고 내버려두는것은 진실한 화공의 태도가 아니다. 그것을 화폭에 옮겨 후대들이 대를 이어 보게 만들어야 한다. ...

김홍도가 한창 붓바람을 날리고있을즈음 꽃구경을 오는 사람들이 전날처럼 꼬리를 물고 찾아왔다. 그들은 커다란 흥미를 가지고 김홍도의 붓끝에서 태어나는 꽃송이들을 열심히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나 없었다.

에로부터 문명한 우리 사람들은 그림을 무척 좋아하고 사랑해왔다. 하기에 명화공, 그것도 자기들의 소박한 생활을 꾸밈이 없이 진실하고 아름답



### 가정주부들이 저마다 찾는 류경김치

호평받는 명제품, 명상품

류경김치공장에서 생산되는 갖가지 김치제품들이 인민들속에서 호평이 자자하다. 류경김치공장에서 만든 통배추김치와 총각김치, 백김치, 석박김치, 어린이영양김치, 깍두기 등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독특한 그 맛을 좀처럼 잊지 못해하고 있다.

평양시 만경대구역 갈림길1동에 살고있는 리영숙녀성은 《내가 담근 김치가 맛있기로 동네에 소문이 나 김치담그는데서는 그대도 내가 《선생》이라고 은근히 자랑했었는데 류경김치공장에서 만든 김치를 맛보고는 그만 두손을 들고말았다. 시원하고 정한 향기, 독특한 감칠맛을 내는 류경김치공장의 제품들에 나부터가 훌쩍 반해버렸다.》고 말하였다.

중앙은행에 다니는 김경숙녀성도 집식구들이 류경김치공장에서 만든 김치를 맛보고는 무 맛있어 하기에 퇴근 할 때마다 꼭꼭 사가지고 가곤 한다고 웃으며 말하였다.

류경김치공장에서 만드는 갖가지 제품들이 운데서도 특히 통배추김치는 맛과 영양가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이름이 높다. 통배추와 무우, 마늘, 생강, 양파, 고추가루, 사랑가루, 명태를 가지고 만드는 통배추김치에는 비타민C를 비롯한 비타민들과 필수아미노산, 미량원소들이 충분히 포함되어있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고 있다.

이곳 공장에서 다 자라지 못한 작은 무우를 얹어 붙은채로 절구어 담근 총각김치와 고추양념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한 백김치도 만들고 있는데 자극성이 없으면서도 산뜻하고 향기로와 주로 늙은이들속에서 인기를 끌고있다.

공장에서 만든 배추와 무우를 썰어서 일정한 비율로 섞고 양념을 넣어 담근 새콤하면서 상쾌한 맛과 향기를 내는 석박김치(일명 썬레기김치)와 주원료에 우유, 옥당, 어린이영양

강화제 등을 배합하여 어린이들의 심리적 및 육체적발달수준과 영양학적으로 맞게 만든 어린이영양김치들도 애기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이 좋아하고있다.

그리고 류별나게 새빨간것으로 하여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고 달콤하면서도 감칠맛이 강한 깍두기는 씹는 맛이 아삭아삭하고 냄새가 향기로와 즐겨 먹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1월 우리 나라 김치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류경김치공장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문명수준에 맞게 김치를 맛있게 만드는 것은 민족음식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지금 류경김치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민족의 향취 넘치는 갖가지 김치와 장절임들을 팡팡 생산하고있다.

본사기자



### 조카한테 속은 삼촌

야담

한 선비가 삼촌과 함께 자주 말을 타고 서울로 오가곤 하였다.

삼촌의 말은 검은나 이마가 희고 조카의 말은 전부 조였다.

삼촌은 욕심이 많은지라 매일 밤마다 조카의 말은 기둥에 동여매 놓고 자기 말에만다만 여물을 먹이였다.

그것을 알게 된 조카는 삼촌은 자기 말이 등에 매어놓고 조카의 말만 여물을 먹였다.

삼촌은 자기 말이 수척해가고 잘 걸지 못하는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조카한테 속은것을 알았다.

그런줄은 꿈에도 모르는 삼촌은 자기 말이의 말만 여물을 먹였다.

삼촌은 자기 말이 수척해가고 잘 걸지 못하는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조카한테 속은것을 알았다.

어저 다시 한번 사람들을 놀래웠다. 한것은 갑자기 집주인인 민씨가 김홍도 선생, 선생을 몰라보고 언감생심 불손한 행위를 꺼림없이 저지른 이 미련한 녀석을 꾸짖어주시오. 난 그저 꽃을 좋아하는 변덕쟁이 행세군인줄 알고 그만...》 하며 잘못을 빌었던것이다. 사람들이 눈이 등그래져서 커다란 호기심을 가지고 어찌된 영문인가를 다루어 묻자 민씨는 어제 자기와 김홍도사이 에 있었던 사연을 다 털어놓았다.

그러자 구경꾼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며 떠들썩 들끓었다.

《내 오래전부터 명화공 단원선생이 인정이 깊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알고보니 정말이였군 그래!》

《단원선생은 인정이 뜨겁기에 인간생활을 그리도 감명깊게 그린다고 합

데.》

《단원선생이야말로 남을 위해 태어났다고 할 선인같은분이지.》

《...》

끓길줄 모르는 경탄속에 누군가가 《자, 이제 사정을 잘 알았으니 우리 단원 선생을 도움시다. 있는것 주머니들을 털어내여 매화 값을 물고 저 화분을 선생에게 드립시다!》라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중소!》

《아무렴, 그래야 하구말구!》

그들은 저마다 몸에 있던 한푼이면 한푼, 두푼이면 두푼을 모두 꺼내놓았다. 민씨앞에는 잠간 사이에 엽전이 무드기 쌓이였다. 그것을 바라보며 민씨는 기가 죽어 어쩔줄 몰라 멍청히 앉아만 있었나. 사람들은 모두 떨쳐나서 먼저 김홍도를 알아본 사람을 길잡이로 화분을 김홍도의 집으로 옮겨 갔다.